

#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2016년 7월 보도자료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I

###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 폭행한 출소자 찾아 기초수급자로 보호한 읍사무소 공무원 등 7월 4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 유공자 포상

- 7월 4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읍사무소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출소자를 찾아 수급자로 보호한 임종현 주무관(지방사회복지서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해 화제다.
- 2011년 사회복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임 주무관은 “선배 공무원들을 보며 사회복지 공무원은 몸소 발로 뛰며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을 구석구석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 임 주무관은 수차례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8개월을 복역한 후 마을로 돌아온 A씨가 생계 문제로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해 수급자로 보호하고, 지금도 자주 찾아 생활을 살피고 있다.
- 공무원 생활 초기에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임 주무관은 수급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했다.
- 임 주무관은 지난 1년 간 사각지대에 놓인 425가구를 기초수급자로 보호했으며, 저소득층 2,007세대에 지역 내 민간 기부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5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 및 물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 늘 구겨진 청바지와 티셔츠, 낡은 운동화 차림으로 지역을 누비는 임종현 주무관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종현 주무관 외에도 광주시 양산동 주민센터 이화영 주무관, 서울시 불광2동 주민센터 문정훈 주무관, 대구시 송현1동 주민센터 박지민 주무관, 목포시 용해동 주민센터 공명진 주무관,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센터 임윤기 주무관 등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의 젊은 공무원들이 맞춤형 급여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맞춤형 급여 1주년」 유공자 포상식은 7월 4일(월) 11:00 세종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숨은 노력에 힘입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소외되었던 많은 분들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 수는 167만 명으로 개편 전 132만 명에 비해 27%나 증가하였으며, 신규 수급자도 47만 명가량 늘어났다.
  - 수급 가구의 월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0만 7천 원(2015.6.)에서 51만 4천 원(2016.5)으로 10만 7천 원가량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7월 「맞춤형 급여 1주년」을 맞아 유공자 포상 이외에도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함께 TV 광고, 톨게이트 광고판, 카카오톡 등의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746번, 기초생활보장과, 2016.7.4.

II	<p><b>디지털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전환과 대응 전략</b></p> <p><b>「제3차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전략 포럼」 개최</b></p> <p>-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등 글로벌 현황을 통한 분야별 해외 진출 전략 논의</p>
----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7일(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공동 후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주최하는 『제3차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전략 포럼』을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기술의 헬스케어 적용 사례 확산에 따라 보건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서비스는 지역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번 제3차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전략 포럼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전환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동향과 사례,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 사례를 통해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 양상을 탐색하고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분야별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에서

○ “ICT의 의료 적용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저개발국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서부터 미국에서의 활성화된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등의 거동 불편자 및 취약지 의료 접근성 강화에의 유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등 연구 결과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며, 병원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시스템 및 기기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 “기술이 그 자체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어 대중이 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때, 큰 흐름으로서 그 분야의 패러다임과 문화를 바꾸게 된다. ICT의 의료 적용은 이미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헬스케어 각 분야에도 어떻게 적용하여 시대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분야별 적용 및 국내외 확산 전략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현장 사례를 듣고, 이에 따라 분야별로 우리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기존의 제도와 환경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대응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전략 포럼』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해외 진출을 확산하고자 작년 12월 출범한 포럼이다. 지난 1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창조하는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그간의 상황을 정리·진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례를 공유하면서 향후 범부처, 의료기관, 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성장 전략을 논의하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755번, 보건의료정책과, 2016.7.7.

Ⅲ

**의·한(醫·韓) 간 협진, 7월 15일부터 13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실시**

- ▶ 의과·한의과 협진 진료 중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찾아내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시범사업 추진.
- ▶ 이번 시범사업은 전체 시범사업 중 제1단계로 13개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같은 날, 같은 기관, 의과·한의과 이용 시 한쪽은 비급여이던 것을 둘 다 건보 적용되도록 하는 것.
- ▶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와 협진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수가와 모형을 적용하는 2단계, 기관 인증 기준 적용, 적용 모형의 수정·보완을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이어 갈 예정.

□ 전국 13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 선정〉**

□ 시범사업에는 국공립병원 8개와 민간병원 5개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6월15일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44개 기관이 응모를 하였으며,
- 응모한 전체 국공립병원 8개와 의과·한의과 간 협력진료 건수 등이 많은 민간병원 5개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기관 선정 결과〉

구분		종별	요양기관
국공립	기관 내	상급종합	① 부산대학교병원
		종합병원	②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③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병원	④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⑤ 서울특별시북부병원
	기관 간	상급종합-한방병원	⑥ 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한방병원
		종합병원-한방병원	⑦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종합병원-한의원	⑧ 충청북도청주의료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민간	기관 내	종합병원	⑨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종합병원	⑩ 나사렛국제병원
		한방병원	⑪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병원	⑫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기관 간	상급종합-한방병원	⑬ 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금번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 (협진 범위)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게 되며
  -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여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이 있었으나
    -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재 의과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 (의료급여 적용)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료급여 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 중에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 (모니터링) 협진 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 사용량, 협진 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협진 모형과 수가 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

-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6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3단계\*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1단계) 2016년 하반기, (2단계) 2017년 하반기 예정, (3단계) 2018년 하반기 예정

-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과·한 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 모형과 수가 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협진병원 인증 기준도 마련하여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 관리,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 시범사업 교육·안내 및 홍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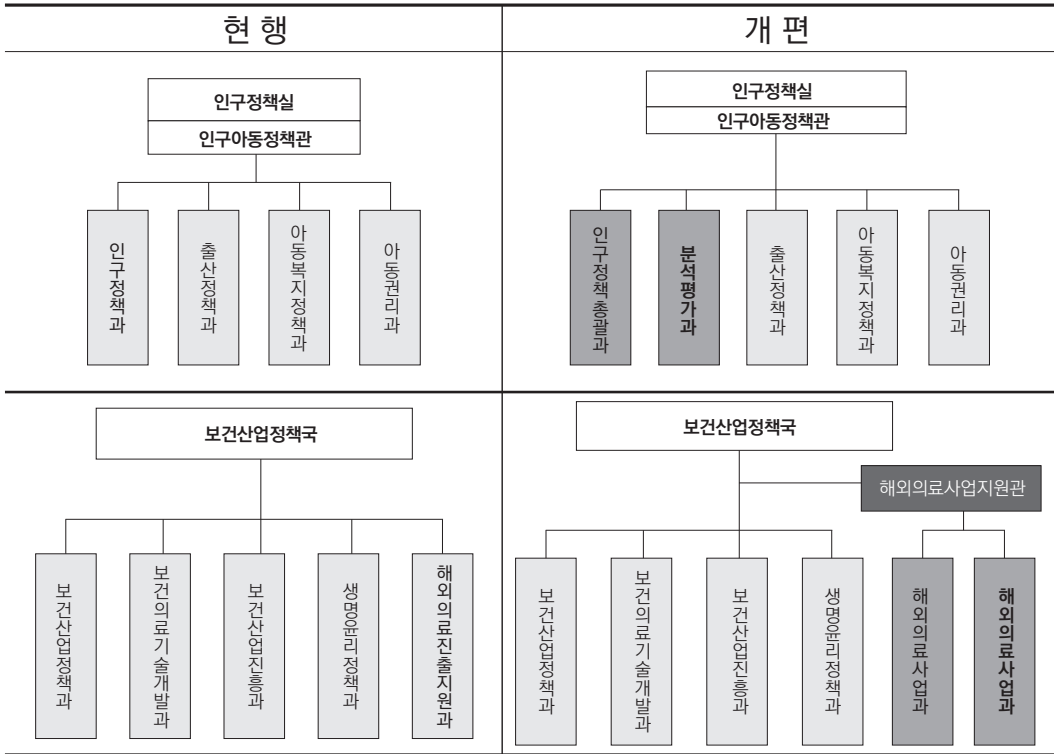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775번, 한의약정책과, 2016.7.12.

<b>IV</b>	<p><b>저출산 극복과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 역량 모은다</b></p> <p>-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 부서 및 해외의료사업 전담 지원관 등 신설</p>
-----------	---

- ▶ 저출산·고령화 관련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 신설.
- ▶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신설.
- ▶ 아시아·미주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이를 지원하여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 또한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의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 최근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대통령의 중동, 중남미 등의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 등을 확대·강화하려는 것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 실적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가 신설된다.
    - 아울러 분석평가과는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정책 역량 집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이다.
  - 둘째, 현재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및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의료 해외 진출 등의 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맡고,
    - 올해 해외 진출 의료기관 155곳,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 또한,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사업 육성·지원,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 기존의 보건산업정책국 아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되고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1관(해외의료사업지원관) +2과(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15명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의료 한류를 확산하기 위한 조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데 전략적 지원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육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간 최대 3조 원의 부가가치 및 최대 5만 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2017년 외국인 환자 50만 명, 162개 의료기관 해외 진출 달성 시 기대효과, 2015.1월 산업연구원 분석).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792번, 창조행정담당관, 2016.7.19.



V

여성 건강의 사각지대 ‘소녀기 건강이슈’ 논의

- ▶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과 건강’ 주제로 제3차 여성건강포럼 개최.
- ▶ 국내 소녀기 건강 실태와 ‘소녀건강’에 대한 국제 보건 전략에 대하여 논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은 2016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여성건강포럼」을 개최한다.


○ 「여성건강포럼」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학교가 공동 협력하여 구성했으며, 여성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이슈를 발굴하고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총 5회의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3차 포럼에서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과 건강”을 주제로 영유아와 모성 건강 사이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녀 건강’의 실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제1부에서는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소녀 건강과 여자의 일생’을 주제로 국내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실태를 포함하여 여성의 일생에 소녀기 건강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 이어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과 개도국 소녀 건강 연구’를 주제로 소녀기 건강 이슈와 국제적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언론, 보건·사회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소녀기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소녀기의 건강 문제는 미래사회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는 일”이라며 “최근 사춘기 소녀의 성 건강이나 소외·저소득층 소녀들의 건강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이 그동안 여성의 건강 이슈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녀기의 건강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797번, 심혈관희귀질환과, 2016.7.21.